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2
임원전지훈련
| 2차 권사 |
2022년 1월 12일(수) – 13일(목)

##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 2022년 김정석 담임목사 신년사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광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곧 그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미래를 현재로 불러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 어려울 지라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연해 보이는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야 합니다.

2022년 우리교회는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평안과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의 생활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이며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생활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죄와 유혹을 이기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학교 교육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교회 안에 많은 교회학교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3면에 계속

2 광림의 강단 너는 나를 따르라
3 광림 스토리 당회/구역회
4 하나님을 만나다 나세남 프로젝트
5 다음세대 임원전지훈련
7 믿음의 현장 해외선교지 순방-1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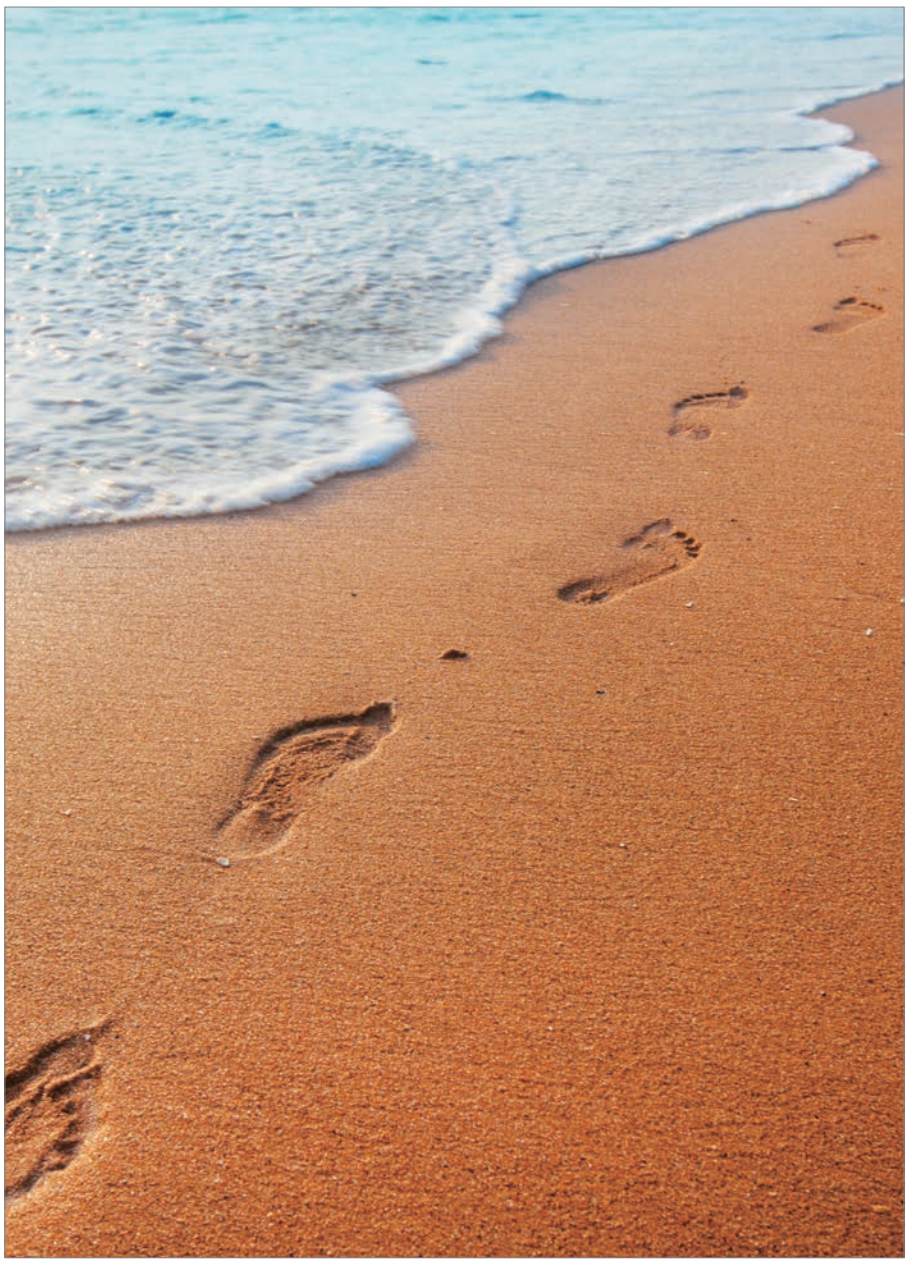
#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갔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전함은 허락되었지만,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고, 무엇보다 베드로에게는 상처와 수치심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19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22절)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금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목적과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24절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 첫째, 주님을 바라볼 때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마 16:22) 그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를 지시고 구원과 생명의 밀알이 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7)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 때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3~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가려졌던 베드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면, 당장 보기에는 좋아보이거나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 지지받지 못하며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인생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며,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 둘째, 예수님을 갈망할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갑자기 요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비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쟁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연약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만연한 염려, 불안,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을 의식하고 경쟁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경쟁의식에 의해 우리는 더욱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절대자요,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셨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22절)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분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은 은혜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셋째,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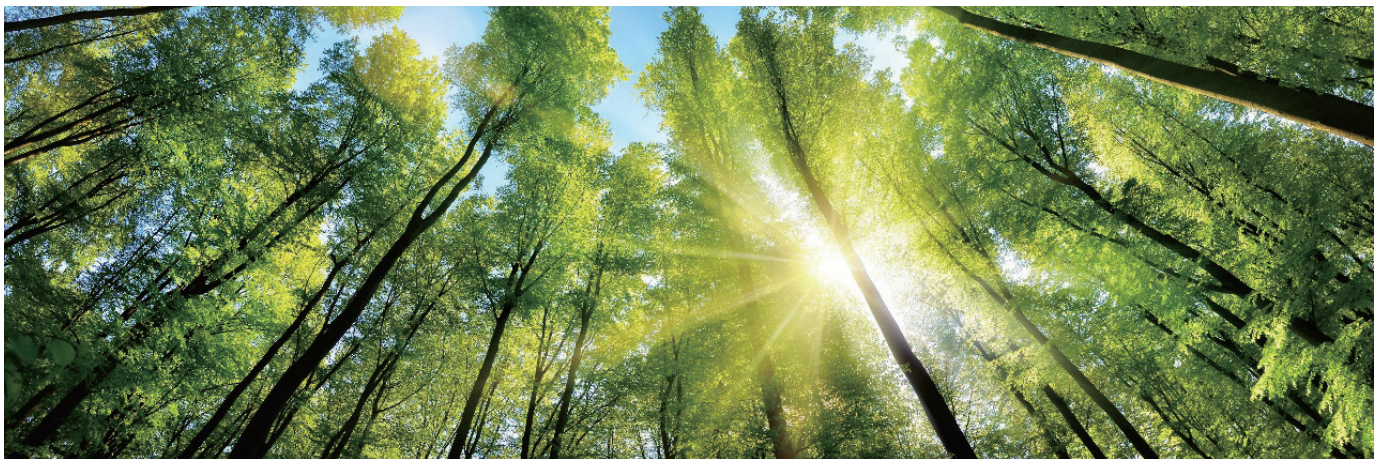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 제자들을 마치 처음 그들을 만났던 것과 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채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경험한 증인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축복해주시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약 200번 나옵니다. 이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전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헌신은 밀알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참된 증인됨의 사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 이웃,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응답하여 복된 걸음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1면에 이어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교회학교 교육의 부재는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교회에서는 교회학교의 교육을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신앙과 삶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림어린이집,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등을 확대·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개발학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전인적 교회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선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독교 청년문화를 개발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 저들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속회와 선교회가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회와 선교회는 함께 모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선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그룹인 속회와 선교를 통하여 함께 말씀과 거룩한 친교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 한해에는 선교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동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교회가 전력을 기울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완공하여 봉헌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센터는 동북아의 선교허브가 될 것이며, 아프리카 잠비아에 세워질 선교센터도 인접해 있는 중앙아프리카 8개의 나라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촉진 운동을 했으며 '선한나눔운동'을 통해 어렵고 소외당한 이들과 해외 선교사에게 위로박스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인우학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를 세워 80개국 약 1,300여명의 선교사들의 쉼터와 재교육 그리고 재충전의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선교국을 중심으로 사랑의 이불나눔 행사를 통해 추위에 노출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부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진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해 오신 광림의 모든 교우에게 감사와 더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2022년 한 해 광림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광림의 모든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담임목사 김 정 석

# 신천장로 6명, 신천집사·권사 청지기로 세우다

광림교회는 지난 12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당회, 구역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교회의 각종 사업을 결산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구성하는 기본의회이며, 구역회는 개체교회가 일년 동안 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의회이다.
참석자는 기존 임원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직분을 갖게 된 신천 집사 58명과 신천 권사 46명, 명예권사 6명도 회의에 참석하였다.
특별히 이날은 3년 만에 광림교회의 새로운 장로를 선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본당에서 후보자 6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기타 업무처리 순서로 지난 한해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임옥주권사에 대한 전도상이 시상되었으며, 코로나 방역에 힘쓴 의료선교위원회와 예배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봉사패가 수여되었다.
신천장로는 투표를 통해 후보자가 모두 높은 찬성률로 통과한 신범식 장로(청장년 선교위원회 위원장),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 최재환 장로(경조본부장), 고희동 장로(1교구 교구장), 배경호 장로(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윤완선 장로(전 육군본부교회 신우부장) 등 6명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번에 피택된 여섯분의 장로들은 감리회 절차에 따라 피택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광림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했다.

이득섭 기자

## 포토 뉴스

**송구영신예배**
2021년 12월 31일 대예배실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임원전지훈련 1차**
1월 5~6일 집사들을 대상으로 임원전지훈련을 진행했다.

**2022 상반기 속회공과**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행되었다.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담임목사 동정

| | |
|---|---|
| 12/31 | 송구영신예배 |
| 1/2 | 신년주일예배 |
| 1/4 | 시무예배 |
| | 남연회 신년하례예배 |
| | 남연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 |
| 1/5-6 | 임원전지훈련1차(집사) |
| 1/9 | 청지기주일 |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내 인생의 말씀

### 외할머니의 유산

"방울아,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이다. 늘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 제천제일감리교회 고귀동 권사님께서 아주 어릴 때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나는 태어날 때 미숙아 경계에 걸릴 정도로 작고 약하게 태어나 부모님의 애를 태우며 자랐다. 그래서 별명도 방울이다. 너무 작아서 붙여진 별명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교회 테두리 안에서 자라왔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익숙한 것과는 달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무 살 즈음 내 마음 속에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며 기도할 때가 많았다. 중학교 때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광림교회에 출석해 온 나로서는 당시 김선도 감독님의 적극적인 신앙으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해외 오지로, 지방으로 선교와 목회를 하러 떠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왜 내게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지 않는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에게도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김선도 감독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해외로 선교를 하러 나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이웃을 위해,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차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허약한 몸이었으나 건강히 자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이끄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늘 바른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시어 지금까지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감히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에게 어릴적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전하고싶다.
늘 뒤에서 기도의 동역자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전인자 권사님! 매주 기도와 말씀 같이 나누는 우리 속회, 선교회 식구들!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여선교회 선배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손지현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CD에스더 선교부장)

# 서울 남연회, 신년하례 감사예배

##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는 1월 4일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2022년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서울남연회 목회자와 평신도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송근종 남연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하여 광림교회 앙상블과 특별찬양에 이어 김정석 감독이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은 '임마누엘'(행 17:22~31)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현실 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다시 새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갈 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석 감독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만물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지만, 사실 호흡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신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아픔과 배신, 슬픔과 고독 가운데서도 같이 하고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셋째, 지근거리에서 더듬어 찾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축복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가장 나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말씀을 마친 뒤 평신도 단체장들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선교회 연합회장 김영관 장로는 '감리회와 서울남연회를 위하여', 여선교회 연합회장 이인순 권사는 '각 지방과 개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학교 연합회장 김영웅 장로는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청장년선교회 연합회장 석두원 권사는 '북한의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장로회 연합회장 최영준 장로는 '각 연합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득섭 기자

# 〈나세남 프로젝트〉에 고마움을 전한 손편지

## 서울남연회 관악지방 목회자, 감사의 마음 전해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남연회 프로젝트〉 (이하 나세남)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연회 교회에는 166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으며 나세남 프로젝트는 미자립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목회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80개 교회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나머지 60개 교회에는 매월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김정석 감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예배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세움을 통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연회를 만들자"고 독려한 바 있다.

최근 서울남연회 관악지방 소속 한 교회 목사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정성을 다해 또박또박 손으로 쓴 편지에는 〈나세남 프로젝트〉의 후원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예배마저 드리기 어려운 시기에 매달 건물주에게 내야 하는 교회 월세와 관리비 마련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개척 교회의 사정을 아는 다른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와 가난한 한 과부를 통해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당장 목회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자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고 목회의 소명마저 사그라져 괴로웠던 심경을 밝혔다. 그런데 작년부터 나세남에서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월세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싹 다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든 품고 살리려는 김정석 감독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나중에 자립교회로 성장하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감사의 마음도 내비쳤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를 주축으로 시작한 〈나세남 프로젝트〉가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게 소중한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밝히고 있다.

유병권 기자

# "복음, 이제는 브랜딩! 문화에 블랜딩!"

## <광림교회 청년부 달레트 사역팀의 도전>

광림교회 청년부 달레트 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뉴스레터를 통해 달레트 팀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성도님들께 전해드렸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펀딩의 결과와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달레트 팀은 지난 11월 27일(토) 텀블벅에서 첫 번째 온라인 펀딩, '온빛담-달맞이꽃 찻잔세트' 판매를 시작해 12월 18일(토) 펀딩 성공으로 종료하였습니다. 펀딩 목표 금액의 146%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었으며, 외부인 후원자들이 새로 유입되는 등 온라인 선교로서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거 달레트 팀은 가로수길 현장에서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지난 20~21년도에 걸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역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현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사역 현장을 옮겼지만, 팀이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과 방향성은 이전과 같이 지켰고, 팀원들이 모두 함께 말씀으로부터 해당 시즌의 주제와 아이템을 기획하여 '복음, 이제는 브랜딩! 문화에 블랜딩!'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온라인 펀딩 종료 이후, 달레트 팀은 올해 1월, 교회에서 3주간에 걸쳐 찻잔 세트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30개 한정이며, 1월 1~3주차(2일, 9일, 16일) 주일 예배 후 사회봉사관 5층에서 판매합니다.
팀 안에서 디자인을 담당한 김준영 자매는 "색다른 시선으로 시도한 새로운 사역인 만큼 기성 사역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지만, 때에 따른 필요와 들어야 할 말씀들을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팀원들 모두 함께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산 및 재정 업무를 맡았던 장수민 자매는 "이번 온빛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준비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달레트 팀이 앞으로도 문화의 방법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 소망을 전하며 믿음의 자리로 안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 2022년 임원전지훈련 〉

## 1차 집사, 1월 5일 ~ 6일 / 2차 권사, 1월 12일 ~ 13일

2022년 광림교회 <임원전지훈련>이 지난 1월 5일(수)부터 6일(목)까지 집사들을 대상으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임원들이 참석한 임원전지훈련은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로 청지기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2022년 새로운 목회방침을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광림교회 임원전지훈련은 1980년대부터 매년 초 실시하는 평신도지도자 프로그램으로 광림교회를 반석위에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고 있다.
광림교회는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겔 37:1~6)를 올해 표어로 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원전지훈련 1차는 (1월 5일~6일) 신천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집사들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사로 받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양일간 모두 김정석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서 첫째 날은 '생명적 신앙으로 다가올 축복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역할을 강조했다. 둘째 날은 광림교회 임원으로서의 모습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의 본을 보여야 된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사랑에 기초한 관계성을 이루며 믿음을 확고히 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선교와 봉사에 참여하는 직분자가 되라"고 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개인 성찬키트를 사용한 성찬예식에 참여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임원전지훈련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신실한 청기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원전지훈련(1월 12일~13일)도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으로 이틀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백명순 기자

## 신앙 간증

###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뜻

저는 2014년부터 광림교회 청년부의 홀리클럽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선교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함께하던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게 되었고, 청년부 홀리클럽이 목사님께서 주도하셨던 팀이다 보니 목사님께서 바뀌실 때마다 팀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2020년, 홀리클럽은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바뀌심으로 홀리클럽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가운데,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이 겹쳐 그동안 하던 현장선교 사역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많은 고민과 전도사님과의 반복되는 이야기 끝에 원래의 홀리클럽처럼 규칙을 세우며 신앙을 점검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1년 12월, 8년 동안 지켜져 온 홀리클럽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원 유입은 거의 없는데, 그동안 자리를 지키던 팀장과 팀원 다수가 다음해 사역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목사님께서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한 후 한 번 더 나눠보세요. 기도 후 나눴을 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팀원들과 홀리클럽 팀의 미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나눈 뒤, 최근 감동을 주시는 찬양 2곡을 들은 뒤 10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후 놀랍게도 달랐던 의견들이 하나로 모여졌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팀장으로서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생각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혼자 분별하며 끙끙 앓았었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내 뜻이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것을,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순종'할 방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 과정을 2번 더 거쳤고 실질적인 방향을 얻게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유현수 지구장(청년부)

## 가정, 신앙 교육의 1번지

- 목회현장 -

임재철 목사(교육1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성경적 성교육, 중독의 시대와 자녀교육, 부모 사명 선언, 가정예배 세우기' 등 총 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며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이 세미나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셨고,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한 해답과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간의 세미나에 함께 하신 분들의 최종적 결론은 '가정의 신앙회복'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본래 가정은 세상을 거룩히 다스리고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된 공동체이자 예배의 첫 번째 처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신앙과 삶에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그리고 '예배 위에'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앙회복은 교회의 회복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가정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 '100 가정예배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22년은 그 첫걸음을 내딛은 원년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의 첫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광림남교회

##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022년 새해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감사,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교회 남선교회(회장: 양상식 장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껏 직분과 직책에 소홀함 없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경기 남부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랑을 위해 부활절과 성탄절 맞이 클린데이를 4월과 11월에 진행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했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혈을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생명 살리는 실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교회 남선교회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리매김할 남성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 다음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0개체 선교회를 통한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호렙산 기도회와 산상 기도회, 등산과 풋살, 사이클 등 육체적 건강과 친목을 통해 하나되는 가정, 전도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장이 힘을 얻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광림남교회 남선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항상 남선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용인 지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상식 장로(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 새로운 시작에 앞서, 교회학교 졸업예배

광림서교회는 지난 12월 26일(주일) 저녁예배 때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였던 부서에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에 앞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함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혜준 전도사(아동부)는 "6학년 친구들이 벌써 졸업을 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코로나로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새로운 부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진급한 학생들은 새로운 부서에 등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교회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에 앞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전진하고 복음의 능력을 포효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북교회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광림제단과 북교회를 위하여, 모든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9)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존재로 거듭나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사람의 발뒷꿈치를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변화된 야곱,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요셉 등 구약의 12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12일 간(2주) 축복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선교회별 특송 순서를 갖고,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자녀들 함께 모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에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해외선교지 순방 - 1>

#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선교

## - 모스크바 광림교회 -

모스크바 광림교회

모스크바 선교센터 내 문화 한글학교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큰 행복이란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에 돌아가 절대자의 신성에 접근할 때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견디기 힘든 고초를 당할 때에도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식당이나 카페 모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해외 여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55만명이 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약 15,000명이며 수도 모스크바는 약 2,000여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역 당국에서는 종교시설 내의 예배를 제한하며 통제하곤 있지만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님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광림 선한나눔운동을 진행하여 고아원, 알콜 마약 중독센터, 난민 시설, 고려인 교회 등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가장 큰 행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호렙산기도회 기간 동안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선교사 가정이 영주권을 받는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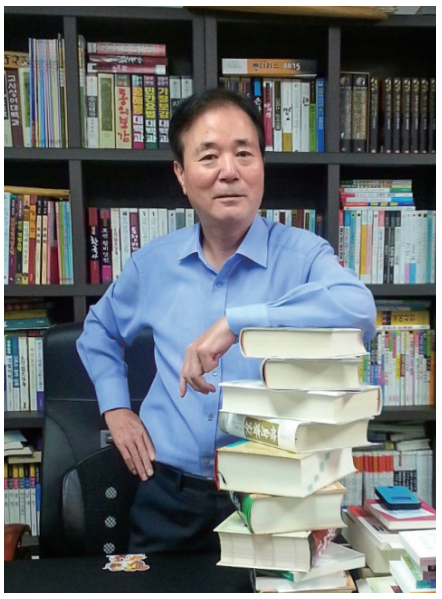
비록 아직까지 러시아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선교, 복음의 빛을 러시아 전 지역에 전파하는 북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용상 목사(러시아 모스크바 광림교회)

# 성경 속 인물을 명화로 만나다

##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 광림뉴스레터 8면에 연재 시작



2022년 새해부터는 아이템하우스에서 발간한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이 광림뉴스레터에 새롭게 연재된다. 먼저 신약성경 이야기가 광림의 성도들을 찾아간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은 명화를 감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신앙과 예술이 만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 열두 제자 이야기 등 성경 속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성화를 보고 해설과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진다.
책을 펴낸 아이템하우스 박효완 대표를 만나 책에 실린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떻게 책을 기획하게 되었나요?**
"크리스천은 물론 일반인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2권으로 구성된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과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은 편안히 영화를 보듯 예술작품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친숙한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책 내용을 감수해 주시고 추천사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추천사에서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성경 내용을 화가들의 안목과 영성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화들을 소개하며, 말씀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독자들이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나아가 기독교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자들이 많이 읽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교보문고 종교부분 서적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전도와 선물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평소에 읽기만 하던 성경을 말씀과 그림을 통해 읽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루벤스 등 미술사를 빛낸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명작을 감상하면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친 편저를 통해 스토리텔링 식의 성경 이야기를 친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광림교회 뉴스레터를 통해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을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명화를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은 광림교회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현수 기자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

광림뉴스레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사도들의 복음 전파 등 성경 속 생생한 모습을 말씀과 그림 설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집을 연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 베드로, 바울 등 열 두 사도들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형성, 스데반 집사의 순교 등 복음 전파의 모습이 명화로 펼쳐진다. 성경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소재로 그린 명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루벤스 등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다.

이상희 기자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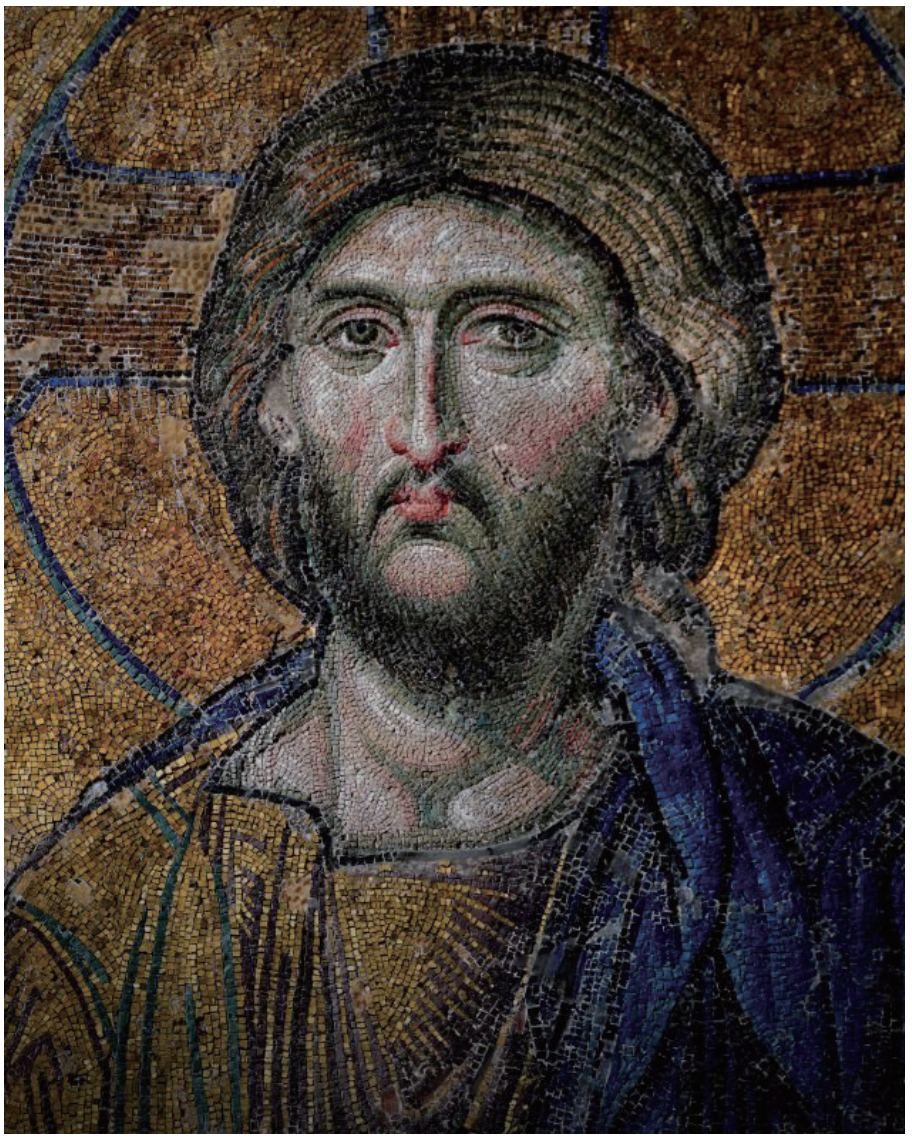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마 1:2~17)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혈통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신약 성경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아브라함** -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의롭게 심판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모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믿음을 칭송하며 대대로 기렸다. - **로렌초 모나코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 - '예수'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예수'와 왕의 칭호인 '그리스도(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뜻한다. 또한, 성경에서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적용하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성당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 벽화로, 왼쪽부터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나열되어 있다. 그림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을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간청한다'라는 내용이다. - **작가미상**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편집인 정존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